HR솔루션사업본부

Jenny Chu 강사

"언어는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발화해 보는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 시간에 학습자분들이 충분히 발화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간략한 프로필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추애지이며 수업 때는 주로 Jenny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파견 나가신 어머니를 따라 한국국제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은 캐나다에 있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대학원은 서울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사실,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후, 제 이런 배경 덕분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무기획득센터 비용방산실에서 해외방산업체들과의 미팅에 다수 참여해보거나 포스코대우 TMC사업부에서 해외 영업,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 신사업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좋은 회사들이었으나 나름의 이유들로 퇴사 후, 우연히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TOEFL이나 IELTS, SAT 등의 수업을 진행하다 현재 직장인 영어 회화 수업으로까지 스펙트럼을 확장하여 출강을 다니고 있으며 캐럿글로벌과는 올 3월에 인연이 되어 계속해서 활발히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 방법이나 교육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가 국내 특목자사고, 특히 외고 학생들 수업이나 국제학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수업도 다년 간 진행해봤고, 진행하고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히 수직적이고 암기식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입 및 취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어 성적들은 특정 자격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생활에서 정말 활용되는 언어라기 보다는 단기간에 목표한 성적을 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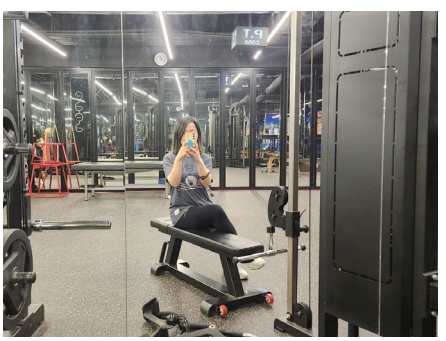
도록 특정 범위의 제한된 표현과 어휘를 빠르게 암기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Speaking 파트 조차도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정형화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답변을 위한 템플릿을 암기해서 들어가 어떤 질문이 나오든 평타 이상의 답변을 하도록 지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도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영어 학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Classic is best라 평이한 문장이나 표현은 변함이 없겠지만, 같은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10년 전에 유행하던 표현이나 어휘와 현재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최신 드라마나 토크쇼, 외신 등을 접하면서 학습자분들에게 평이한 표현 및 현재 자주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을 같이 알려드리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언어는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발화해 보는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 시간에 학습자분들이 제가 안내드린 표현을 활용하여 충분히 발화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 본인의 Mission이나 꿈이 있다면...

더 많은 학습자들을 만나고 경험해서 영어를 배우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걱정하는 부분을 모두 이해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강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강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처음에는 영어에 부담감을 가지거나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제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시거나 준비해 간 수업을 좋아해 주시고, 배운 표현들을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에 잘 응용해서 활용하시고 종래에는 학습자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현재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발화'를 강조합니다. 언어는 무조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보는게 중요한데, 한국 분들, 특히 회사 고위 임원분들일수록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원하시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완벽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으시면 말씀을 잘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어도 대화할 때에는 모든 문법적은 요소를 다 지켜서 말하지는 않듯이, 영어로 대화할 때에도 전치사 등 자잘한 문법적 실수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 (또한, 그런 실수가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교정해드리니!)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 번 말로 꺼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COVID-19를 계기로 비대면 수업 진행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와 학습자 호응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습자분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았으나, 한 번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보신 분들은 비대면 수업을 계속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지 않으

셨던 분들은 수업 퀄리티나 몰입도 등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비대면 수업일수록 강사도 학습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PPT 등 수업 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만큼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퀄리티나 몰입도가 차이가 있지는 않다 보니 이동시간이나 편의성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비대면 수업을 계속 찾으시는 것 같아요.

캐럿글로벌이 타사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캐럿글로벌과 수업 진행하면서 제일 놀랐던 점이 각 회사/수업 마다 담당 매니저님들이 다 따로 계시고 매 수업 출결 및 학습자 평가 등을 꼼꼼히 관리하신다는 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도 강사나 수업 평가를 진행하여 강사와 학습자의 만족도를 함께 확인해주시고, 만약, 강사와 학습자의 방향성이 다를 경우에는 빠르게 내용을 공유해주시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도 학습자 분들이 원하시는 수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내용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